

5. M&A 및 IPO

〈글로벌동향〉

- 2016년 4/4분기중 글로벌 M&A시장 규모는 초대형거래 발표로 인하여 전분기대비 증가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실적치인 전년동기 수준에 육박
- 2016년 4/4분기중 글로벌 IPO시장은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아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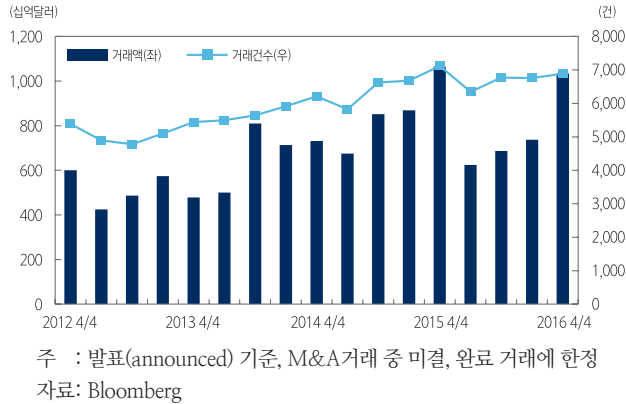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중 국내 M&A시장 규모는 1건의 초대형 In-Out 국경간 M&A거래가 시장을 견인하며 2015년 3/4분기 이후의 부진에서 반등
- 2016년 4/4분기중 국내 IPO시장 규모는 2010년 3/4분기 이후 최고 수준 기록

가. 글로벌동향

1) M&A시장

- 2016년 4/4분기중 글로벌 M&A시장 규모는 초대형거래로 인하여 전분기대비 증가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실적치인 전년동기 수준에 육박
 - 2016년 1/4분기 글로벌 M&A시장이 위축되었으나, 2016년 2/4분기부터 M&A거래 발표 증가
 - 동분기중 글로벌 M&A시장 규모는 1조 33억달러로 전분기대비 40.2% 증가한 반면, 전년동기대비 2.9% 감소
 - 동분기중 글로벌 M&A시장 거래건수는 6,882건으로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반면, 전년동기대비 3.3% 감소
 - 동분기중 100억달러 이상 초대형거래의 공시가치는 4,156억달러(11건)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실적치인 전년동기 4,409억달러(16건) 수준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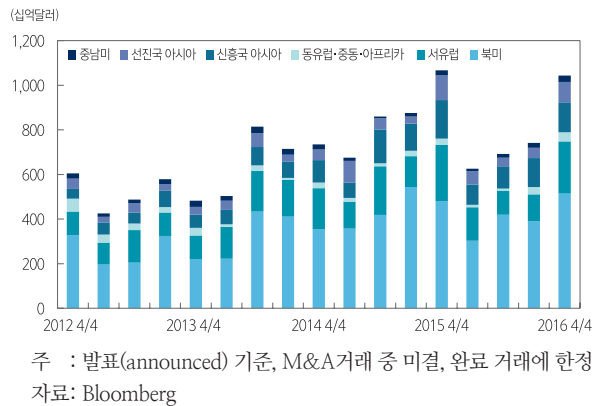
글로벌 M&A시장 규모 추이



□ 2016년 4/4분기중 지역별 M&A시장 규모는 전지역에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며 북미와 동유럽·중동·아프리카 및 중남미는 전년동기 수준을 상회

- 동분기중 인수대상지역 기준 거래규모는 북미 5,143억달러, 서유럽 2,335억달러, 신흥국 아시아 1,339억달러, 선진국 아시아 911억달러
- 전분기대비 지역별로 선진국 아시아(98.0%), 서유럽(93.4%), 북미(32.0%), 중남미(30.5%), 동유럽·중동·아프리카(26.2%), 신흥국 아시아(3.2%) 증가
- 전년동기대비 지역별로 동유럽·중동·아프리카(49.4%), 중남미(26.8%), 북미(7.0%)는 증가, 반면 신흥국 아시아(-22.4%), 선진국 아시아(-18.0%), 서유럽(-7.3%)은 감소

글로벌 M&A 지역별 추이



□ 2016년 4/4분기중 상위 10개 M&A거래의 공시가치는 4,056억달러로 전체 거래규모의 39.3% 차지

- 동분기중 최대 거래는 미국 통신회사인 AT&T와 미국 미디어회사 Time Warner의 합병이며, 공시가치는 1,071억달러로 역대 7번째 규모의 대형거래
- 영국 담배회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 Plc.의 미국 담배회사 Reynolds American Inc. 인수가 공시가치 596억달러로 2위를 기록

상위 10개 글로벌 M&A 거래목록(2016년 4/4분기 기준)

공시일	기업명		공시가치 (백만달러)	주관사	
	인수대상 (국가/업종)	인수기업 (국가/업종)		인수대상	인수기업
2016.10.22	Time Warner (미국/미디어)	AT&T(미국/통신)	107,131	Allen & Co, Citi,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Pierce Fenn, Perella Weinberg Partner
2016.10.21	Reynolds American Inc. (미국/담배)	British American Tobacco Plc. (영국/담배)	59,553	Goldman Sachs, Lazard	Centerview Partners LLC, Deutsch Bank, UBS
2016.11.21	Energy Transfer Partners (미국/송유관)	Sunoco Logistics Partners LP (미국/송유관)	51,382	Barclays	Citi
2016.10.27	NXP Semiconductors (네덜란드/반도체)	Qualcomm Inc. (미국/반도체)	46,046	Barclays, Credit Suisse, Qatalyst Group	N/A
2016.12.20	Linde AG (독일/가스)	Praxair Inc. (미국/가스)	40,352	BoA, Macquarie, Morgan Stanley, Perella Weinberg Partner	Credit Suisse
2016.10.31	Level 3 Communication Inc. (미국/정보통신)	CenturyLink Inc. (미국/통신)	33,500	Citigroup Inc., Credit Suisse	BoA, Morgan Stanley
2016.12.09	Sky PLC. (영국/케이블TV)	21st Century Fox Inc. (미국/미디어)	22,602	Barclays, Morgan Stanley, PJT Partners Inc.	Centerview Partners LLC, Deutsch Bank, Goldman Sachs, JP Morgan
2016.11.28	Datang International Power Generation Co Ltd. (중국/전기)	China Datang Corp. (중국/전기)	19,797	Gram Capital Ltd.	N/A
2016.10.15	Essar Oil Ltd. (인도/석유 정제 및 판매)	Rosneft Oil Co, United Capital Partners (러시아/석유), United Capital Partners. (미국/금융) 등	12,909	Arpwood Capital, JM Financial Ltd., VTB Capital	UBS
2016.10.20	Ausgrid (호주/전기)	Austrailiansuper Pty Ltd (호주/금융), Investors Pty Ltd. (호주/금융)	12,365	N/A	KPMG Corp., Maquarie

주 : 발표(announced) 기준, M&A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자료: Bloomberg

□ 2016년 4/4분기중 M&A 재무자문사 순위에서는 Morgan Stanley, JP Morgan, Goldman Sachs가 상위 자리를 차지

- Morgan Stanley는 AT&T와 Time Warner 합병 등 74건의 중대형 거래를 주관하여 전년동기 2위에서 동분기 1위 탈환
- AT&T와 Time Warner 합병 및 British American Tobacco Plc.의 Reynolds American Inc.인수의 자문사로 선정된 Perella Weinberg Partners와 Centerview Partners LLC가 각각 7위와 8위 차지하며 순위 상승

글로벌 M&A 재무자문사 순위(2016년 4/4분기 기준)

순위	자문단	전년동기 순위	총거래가치 (백만달러)	평균 거래가치 (백만달러)	거래 건수(건)	주요 거래
1	Morgan Stanley	2	308,515	4,169	74	AT&T와 Time Warner의 합병, Praxair Inc.의 Linde AG 인수 등
2	JP Morgan	3	301,298	3,814	79	21st Century Fox Inc.의 Sky PLC. 인수 등
3	Goldman Sachs	1	272,874	3,328	82	British American Tobacco Plc.의 Reynolds American Inc.인수 등
4	BoA Merrill Lynch	4	268,389	4,549	59	Praxair Inc.의 Linde AG 인수 등
5	Citi	9	258,073	4,963	52	AT&T와 Time Warner의 합병, Sunoco Logistics Partners LP의 Energy Transfer Partners 인수 등
6	Barclays	6	190,739	3,974	48	Sunoco Logistics Partners LP의 Energy Transfer Partners 인수, Qualcomm Inc.의 NXP Semiconductors 인수 등
7	Perella Weinberg Partners	14	148,253	37,063	4	AT&T와 Time Warner의 합병, Praxair Inc.의 Linde AG 인수 등
8	Centerview Partners LLC	12	131,542	21,924	6	British American Tobacco Plc.의 Reynolds American Inc.인수 등
9	Lazard Ltd	5	129,810	2,318	56	British American Tobacco Plc.의 Reynolds American Inc.인수 등
10	UBS	11	126,138	3,409	37	British American Tobacco Plc.의 Reynolds American Inc.인수 등

주 : 1) 발표(announced) 기준, M&A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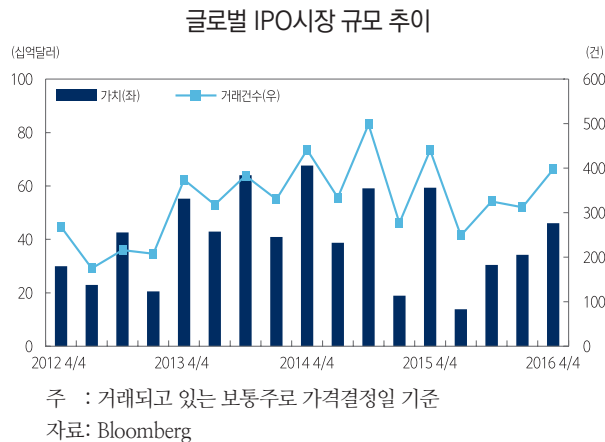
2) 순위는 거래가치 기준

자료: Bloomberg

2) IPO시장

□ 2016년 4/4분기중 글로벌 IPO시장은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아시아시장의 선전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

- 동분기중 글로벌 IPO시장 거래규모는 461억달러, 거래건수는 397건 기록
 - 전년동기대비 글로벌 IPO시장 거래규모는 22.4% 감소, 거래건수는 9.8% 감소
 -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2016년 글로벌 IPO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
- 반면 동분기중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아시아가 글로벌 IPO시장을 주도하며 전분기 대비 증가
 - 전분기대비 글로벌 IPO시장 거래규모는 34.4% 증가, 거래건수는 27.2% 증가
 - 중국과 홍콩의 IPO시장 거래규모는 177억달러(거래건수 166건)로 글로벌 IPO시장 규모의 38.4%를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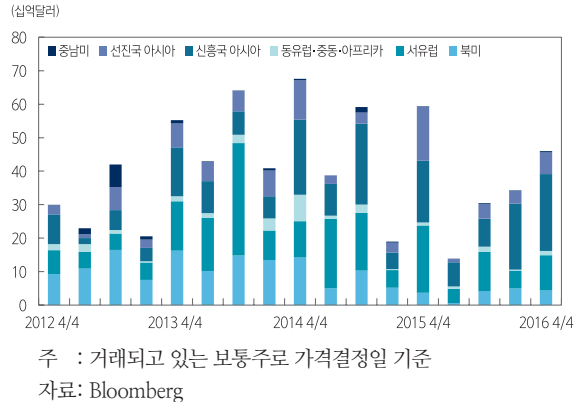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중 지역별 IPO시장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신흥국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전분기대비로는 북미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증가

- 동분기중 지역별 IPO시장 거래규모는 신흥국 아시아 230억달러, 서유럽 105억달러, 선진국 아시아 65억달러, 북미 44억달러, 동유럽·중동·아프리카 13억달러
- 전분기대비 지역별로 중남미(623.3%), 동유럽·중동·아프리카(346.2%), 서유럽(96.7%), 신흥국 아시아(16.6%)는 증가, 반면 북미(-12.2%)는 감소

- 전년동기대비 지역별로 중남미(170.7%), 동유럽·중동·아프리카(46.6%), 신흥국 아시아(24.7%), 북미(18.0%)는 증가, 반면 선진국 아시아(-59.6%), 서유럽(-47.7%)은 감소

지역별 글로벌 IPO시장 규모 추이



- 2016년 4/4분기중 상위 10개 IPO중 3건은 금융업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신흥국 아시아 4건, 선진국 아시아 3건, 유럽지역에서 3건 성사
 - 거래규모 기준 1위는 독일 에너지기업인 Innogy SE의 Xetra 거래소상장(51.8억달러)
 - 중국 China Resources Pharmaceutical(19.4억달러)와 CSC Financial Co Ltd.(10.6억달러)의 홍콩거래소 상장, Bank of Shanghai Co(17.2억달러)와 Huaan Securities Co(8.2억달러)의 상해거래소 상장
 -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2억달러)와 두산밥캣(7.9억달러)의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등 신흥국 아시아 지역 IPO 부각

상위 10개 글로벌 IPO 거래목록(2016년 4/4분기 기준)

공시일	기업명 (국가/업종)	상장 거래소	Offer Size (백만달러)	주요 주관사
2016.08.11	Innogy SE (독일/에너지)	Xetra	5,179.0	UBS, Goldman Sach International, Deutsch Bank, Credit Suisse, BNP Paribas
2016.09.15	Kyushu Railway Co. (일본/교통)	도쿄거래소	4,068.5	JP Morgan, Morgan Stanley, Nomura International PLC, Goldman Sachs International, JP Morgan Securities Pte Ltd, SMBC Nikko Securities Inc., Nomura Securities Co Ltd., Mitsubishi UFJ Morgan
2016.10.03	ConvaTec Group PLC. (영국/헬스케어)	런던거래소	2,040.0	BoA, Credit Suisse AG, Deutsche Bank AG London, Goldman Sachs International, JP Morgan Cazenove, Morgan Stanley & Co., UBS
2016.10.04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의료)	한국거래소	2,016.6	NH투자증권, JP Morgan Securities, Credit Suisse, 한국투자증권, Citigroup Global Markets Korea
2016.10.13	China Resources Pharmaceutical (중국/의약품)	Hong Kong	1,941.5	BOCI, China Securities International, CMB International Capital Corp., JP Morgan, ABCI, ICBC, HSBC, Mizuho Securities Asia, China Merchants Securities(HK),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CB
2014.06.30	Bank of Shanghai Co Ltd. (중국/은행)	상해거래소	1,719.8	Shenwan Hongyuan, Financing Serv, Guotai Juan Securities Co Ltd.
2016.11.28	CSC Financial Co Ltd. (중국/금융회사)	Hong Kong	1,056.9	UBS, SSIF, SPDB, ICBC, Guotai Junan Securities, Haitong International Securities, Guosen Securities HK Capital, GF Securities HK, Dongxing Securities Co Ltd., Deutsche Bank, CMB, China Securities International, China Merchants Securities
2014.04.21	Huaan Securities Co Ltd. (중국/금융회사)	상해거래소	824.0	Huatao United Securities
2016.10.06	Ahlsell AB (스웨덴/유통)	Stockholm	803.2	Carnegie Investment Bank, Danske Bank, Deutsche Bank, Goldman Sachs, JP Morgan, Nordea Bank Sweden, UBS
2016.10.13	두산밥캣 (한국/기계)	한국거래소	795.1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HSBC Securities, Credit Suisse, 한국투자증권, JP Morgan Securities

주 :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로 가격결정일 기준

자료: Bloomberg

□ 2016년 4/4분기중 IPO 주관사 순위에서는 일본 Nomura, 중국 Shenwan Hongyuan Group Co Ltd.가 10위권 진입

- JP Morgan, Credit Suisse, BoA는 전년동기대비 순위 상승한 반면, Morgan Stanley, Goldman Sachs는 전년동기대비 순위 하락
- Nomura는 Kyushu Railway Co.의 도쿄거래소 상장 등 10건의 거래를 주관하여 전년동기 31위에서 9위로 상승
- 중국의 Shenwan Hongyuan Group Co Ltd.는 Bank of Shanghai Co.의 상해거래소 상장 등 7건을 주관하여 10위권에 신규 진입

글로벌 IPO 주관사 순위(2016년 4/4분기 기준)

순위	자문사	시장 점유율 (%)	전년동기		실적 (백만달러)	거래 건수 (건)	수수료 (백만달러)	가치 (백만달러)	주요 거래
			순위	시장 점유율 (%)					
1	JP Morgan	6.3	9	3.3	2,770	16	886,950	16,500,000	Kyushu Railway Co. 도쿄거래소상장 등
2	Credit Suisse	5.6	3	5.8	2,460	18	29	818	Innogy SE의 Xetra 거래소 상장, ConvaTec Group PLC. 런던거래소 상장 등
3	Morgan Stanley	5.1	1	10.1	2,220	19	37	1,540	Kyushu Railway Co. 도쿄거래소상장 등
4	Goldman Sachs	4.9	2	5.9	2,150	13	20	614	Innogy SE의 Xetra거래소 상장, Kyushu Railway Co. 도쿄거래소상장 등
5	UBS	4.0	5	4.7	1,770	14	7	141	Innogy SE의 Xetra 거래소 상장, ConvaTec Group PLC. 런던거래소 상장 등
6	BoA Merrill Lynch	4.0	11	2.6	1,750	10	3,100,000	57,750,000	ConvaTec Group PLC. 런던거래소상장 등
7	Deutsche Bank	3.8	10	2.7	1,670	15	12	195	Innogy SE의 Xetra거래소 상장 등
8	Citi	3.1	4	5.0	1,370	19	1,770,000	33,000,000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상장 등
9	Nomura	2.6	31	0.8	1,160	10	24	1,040	Kyushu Railway Co. 도쿄거래소상장 등
10	Shenwan Hongyuan Group Co Ltd.	2.5	-	-	1,110	7	-	-	Bank of Shanghai Co Ltd. 상해거래소 상장 등

주 :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로 가격결정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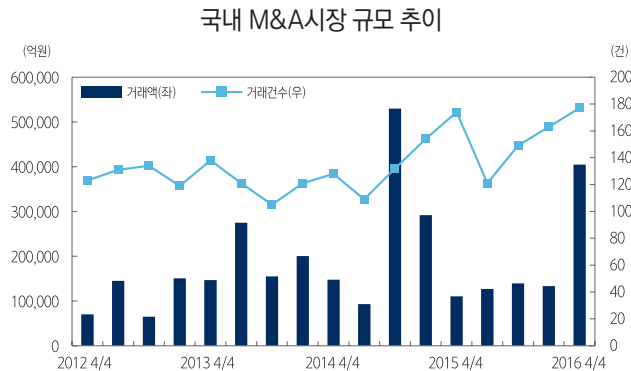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 국내동향

1) M&A시장

□ 2016년 4/4분기중 국내 M&A시장 규모는 2015년 3/4분기 이후 감소세에서 반등하며 전년 동기 및 전분기대비 증가

- 동분기중 거래규모는 40조 4,811억원, 거래건수는 177건으로 전분기대비 거래규모는 203.3%, 거래건수는 8.6% 증가
 - 전년동기대비 거래규모는 266.5%, 거래건수는 1.7% 증가
 - 국내 M&A시장은 2015년 3/4~4/4분기 SK홀딩스와 SKC&C,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 그러나 2016년 4/4분기중 삼성전자의 Harman 인수 등으로 시장 규모 반등
- 동분기중 1조원 이상 초대형거래는 6건으로 전분기(4건)와 전년동기(1건)대비 증가, 특히 10조원을 초과하는 In-Out 거래 성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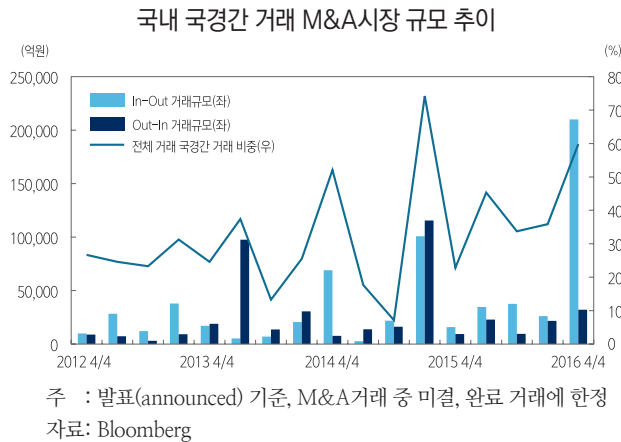
주 : 발표(announced) 기준, M&A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자료: Bloomberg

□ 2016년 4/4분기중 국경간 M&A거래는 초대형 In-Out M&A거래 성사에 주로 기인하며 증가

- 동분기중 국경간 M&A거래 규모는 24조 2,2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0.3%, 전분기 대비 406.2% 증가

1) In-In 거래는 국내기업간 M&A, In-Out 거래는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M&A, Out-In 거래는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M&A 거래로 정의

- 동분기중 국경간 M&A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0%, 전분기대비 16.3% 증가
 - 동분기중 전체 M&A거래대비 국경간 M&A거래규모 비중은 59.8%로 전년동기대비 37.0%p, 전분기대비 24.0%p 증가
- In-Out 거래규모는 21조 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25.8%, 전분기대비 702.8% 증가
- In-Out 거래건수는 3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7.6%, 전분기대비 24.0% 증가
 - 이중 1조원이상 초대형 In-Out 거래는 4건이며 공시가치는 19조 3,211억원에 달함
- Out-In 거래규모는 3조 2,1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2.8%, 전분기대비 48.3% 증가
- Out-In 거래건수는 1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0% 감소, 전분기대비 5.6% 증가



- 2016년 4/4분기중 상위 10개 M&A거래의 공시가치는 33조 6,271억원으로 전체 거래규모의 83.1%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6건이 In-Out 거래, 1건은 Out-In 거래에 해당
- 동분기중 최대 M&A거래는 In-Out 거래인 삼성전자의 미국 오디오 및 전자부품기업인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인수로 공시가치는 10조 1,275억원
- 국민연금공단 등 컨소시엄의 미국 TeamHealth Holdings Inc. 인수(6조 3,941억원), MBK파트너스의 일본 골프업체 Accordia Golf Co Ltd. 인수(1조 5,043억원), MBK파트너스와 TPG 컨소시엄의 홍콩 이동통신업체 Wharf T&T Ltd. 인수(1조 3,663억원) 등 5건 역시 In-Out 거래임

국내 IPO 주관사 순위(2016년 4/4분기 기준)

공시일	기업명		공시가치 (억원)	주관사	
	인수대상 (국가/업종)	인수기업 (국가/업종)		인수대상	인수기업
2016.11.14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미국/오디오 및 전장부품)	삼성전자(한국/전자)	101,275	JP Morgan, Lazard	Evercore Partners
2016.12.12	대우조선해양(한국/조선)	한국산업은행 (한국/금융)	100,670	N/A	N/A
2016.10.31	TeamHealth Holdings Inc.(미국/인사관리)	Casse de depo et placement de Quebec, PSP Investments, 국민연금공단 (미국, 한국/금융)	63,941	Citi, Goldman Sachs	BoA, Barclays, JP Morgan, Morgan Stanley
2016.11.18	International Finance Center/South Korea(한국/부동산관리서비스업), AIG Global Real Estate Investment Corp*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 (캐나다/부동산운용개발업)	25,500	N/A	N/A
2016.11.29	Accordia Golf Co Ltd. (일본/골프)	MBK 파트너스 (한국/금융)	15,043	Mitsubishi UFJ Morgan Stanley	Daiwa Securities
2016.10.04	Wharf T&T Ltd. (홍콩/이동통신), Wharf Holdings*	MBK 파트너스, TPG 캐피탈 (한국/금융)	13,663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UBS
2016.12.16	동부고속(한국/운송업)	동원산업(한국/어업)	4,162	N/A	N/A
2016.12.21	Novartis Headquarter Building (프랑스/부동산관리) BNP Paribas SA*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	4,109	N/A	N/A
2016.10.24	Lotte Chemical USA Corp (한국/유통서비스)	롯데케미칼 (한국/석유화학)	3,909	N/A	N/A
2016.11.25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 홀딩스 (한국/유해물폐기물처리) JPMorgan Chase & Co*	IMM Investment Corp(한국/금융)	4,000	N/A	N/A

주 : 1) 발표(announced) 기준, M&A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2) *의 경우 매도단과 매도단 자문사

자료: Bloomberg

□ 2016년 4/4분기중 M&A 재무자문사 순위에서 삼성전자의 Harman 인수 자문에 힘입어 JP Morgan, Lazard, Evercore Partners Inc.가 상위 자리를 차지

- JP Morgan Stanley는 삼성전자의 Harman 인수, 국민연금공단 등의 TeamHealth Holdings Inc. 인수 2건의 대형거래를 주관하여 전년동기 6위에서 동분기 1위로 상승
- 삼성전자의 Harman 인수에 참여한 부티크 IB Lazard와 Evercore Partners Inc.가 각각 공동 2위를 차지

국내 M&A 재무자문사 순위(2016년 4/4분기 기준)

순위	자문단	전년동기 순위	총거래가치 (백만원)	평균 거래가치 (백만원)	거래 건수(건)	주요 거래
1	JP Morgan	6	16,521,594	8,260,797	2	삼성전자의 Harman 인수, 국민연금공단 등의 TeamHealth Holdings Inc. 인수
2	Lazard Ltd	6	10,127,475	10,127,475	1	삼성전자의 Harman 인수
2	Evercore Partners Inc.	12	10,127,475	10,127,475	1	삼성전자의 Harman 인수
4	Morgan Stanley	—	9,264,636	3,088,212	3	국민연금공단 등의 TeamHealth Holdings Inc. 인수 등
5	Goldman Sachs	—	7,930,379	2,643,460	3	국민연금공단 등의 TeamHealth Holdings Inc. 인수 등
6	Barclays	—	6,394,118	6,394,118	1	국민연금공단 등의 TeamHealth Holdings Inc. 인수 등
6	BoA Merrill Lynch	—	6,394,118	3,197,059	2	국민연금공단 등의 TeamHealth Holdings Inc. 인수 등
6	Citi	5	6,394,118	6,394,118	1	국민연금공단 등의 TeamHealth Holdings Inc. 인수 등
9	UBS	—	1,511,929	755,965	2	MBK파트너스와 TPG 컨소시엄의 홍콩 이동통신업체 Wharf T&T Ltd. 인수 등
10	Daiwa Securities	—	1,504,257	1,504,257	1	MBK파트너스의 일본 골프업체 Accordia Golf Co Ltd. 인수

주 : 1) 발표(announced) 기준, M&A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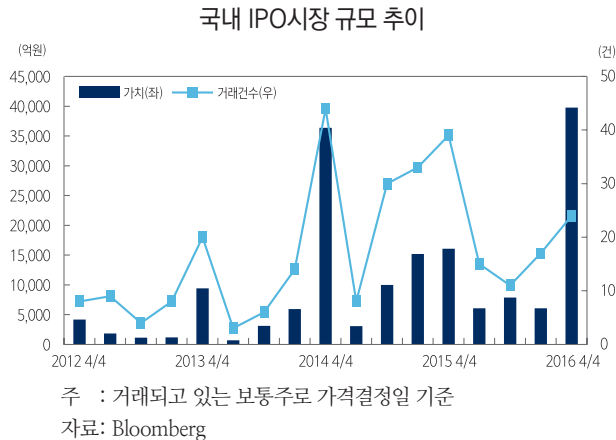
2) 순위는 거래가치 기준

자료: Bloomberg

2) IPO시장

□ 2016년 4/4분기중 국내 IPO시장 규모는 2010년 3/4분기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동분기중 국내 IPO시장 거래규모는 3조 9,776억원, 거래건수는 24건으로 거래규모 측면에서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대폭 증가
 - 전년동기대비 거래건수는 38.5% 감소하였으나, 2건의 초대형 거래(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캣)에 힘입어 거래규모는 147.8% 증가
 - 전분기대비 거래건수는 41.2% 증가하고, 거래규모는 557.3% 증가
- 2010년 3/4분기에서 2016년 3/4분기 평균 국내 IPO시장 거래규모는 7,750억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침체



□ 2016년 4/4분기중 상위 10개 IPO가 전체 시장의 95.3%를 점유

- 규모기준 1위 IPO는 의료업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2조 2,496억원(공모기준가 136,000원) 자금 조달, 공모 규모 역대 2위임
- 규모기준 2위는 두산밥캣으로 9,008억원(공모기준가 30,000원) 자금 조달하였으며, 규모기준 3위 IPO인 클리오노 코스닥 시장에서 1,844억원(공모기준가 41,000원) 자금 조달

상위 10개 국내 IPO 거래목록(2016년 4/4분기 기준)

공시일	기업명 (업종)	상장 거래소	Offer Size (백만원)	주요 주관사
2016.10.04	삼성바이오로직스 (의료)	유가증권시장	2,249,620	NH투자증권, JP Morgan Securities, Credit Suisse, 한국투자증권, Citiigroup Global Markets Korea
2016.10.13	두산밥캣 (기계)	유가증권시장	900,846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HSBC Securities, Credit Suisse, 한국투자증권, JP Morgan Securities
2016.09.30	클리오 (화장품 및 생활용품)	코스닥	184,402	NH투자증권
2016.11.01	신라젠 (의료용연구 및 검사서비스)	코스닥	150,000	NH투자증권
2016.09.09	코스메카코리아 (화장품 및 생활용품)	코스닥	72,360	삼성증권
2016.09.09	JW 생명과학 (의료)	유가증권시장	72,000	KB 투자증권
2016.10.21	헨즈코퍼레이션 (자동차 및 트럭부품)	유가증권시장	65,784	KB 투자증권
2016.09.12	HL사이언스(의료)	코스닥	40,800	KB 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2016.10.21	뉴파워프리즈마 (전자부품)	코스닥	29,750	키움증권
2016.08.26	Intellian Technologies Inc. (이동통신)	코스닥	27,550	한국투자증권

주 :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로 가격결정일 기준

자료: Bloomberg

□ 2016년 4/4분기중 IPO 주관사 순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IPO를 주관한 국내 증권사 및 외국계 투자은행이 상위 자리 차지

-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이 1위 자리를 유지, 두산밥캣 등의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이 전년동기 4위에서 2위로 상승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 등의 주관을 맡은 Credit Suisse, JP Morgan, Citi가 10위권으로 신규 진입, 이외 국내 증권사는 소수의 거래 주관업무를 담당하여 5~10위권 점유

국내 IPO 주관사 순위(2016년 4/4분기 기준)

순위	자문사	시장 점유율 (%)	전년동기		실적 (백만원)	거래건수 (건)	수수료 (백만원)	가치 (백만원)	주요 거래
			순위	시장 점유율(%)					
1	NH투자 증권	20.1	1	23.7	797,330	4	6.0	625,560	삼성바이오로직스, 클리오, 신라젠 등
2	한국투자 증권	16.3	4	10.5	646,520	5	6.7	826,960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캣 등
3	Credit Suisse	15.1	-	-	600,060	2	2.8	417,150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캣
3	JP Morgan	15.1	-	-	600,060	2	4.3	653,320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캣
5	Citi	11.3	-	-	449,920	1	3.2	462,620	삼성바이오로직스
6	KB투자 증권	4.0	3	19.5	158,180	4	1.5	112,720	JW생명과학 등
7	한화투자 증권	3.8	16	-	150,140	1	0.3	54,500	두산밥캣
7	HSBC	3.8	-	-	150,140	1	0.5	81,750	두산밥캣
7	신영투자 증권	3.8	12	1.2	150,140	1	0.3	54,500	두산밥캣
10	키움증권	2.1	5	5.6	85,180	5	3.0	87,740	뉴파워프리즈마 등

주 :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로 가격결정일 기준

자료: Bloomberg

연구위원 최순영 (02-3771-0688, soonchoi@kcmi.re.kr)

선임연구원 김규림 (02-3771-0684, kgyulim@kcmi.re.kr)

M&A 및 IPO 주요 이슈: 국내 국경간 M&A거래 증가

□ 국내 국경간 M&A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도 국경간 M&A 거래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 기록

— 2016년 국경간 M&A 거래규모는 39조 4,690억원으로 2012년 7조 8,495원대비 약 5배 증가

- 전체 M&A시장대비 국경간 M&A 거래규모 비중은 2012년 21.5%에서 2016년 49.1%로 27.6%p 증가

— Out-In 거래규모는 2012년 2조 5,111억원에서 2015년 15조 4,95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8조 6,208억원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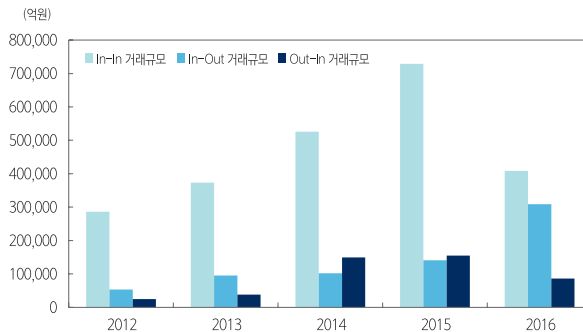
- 전체 M&A시장대비 Out-In 거래규모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4년 19.2%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 10.7% 수준 기록

— In-Out 거래규모는 2016년 30조 8,482억원으로 2012년 5조 3,384억원대비 5.8배 증가

- 전체 M&A시장대비 In-Out 거래규모 비중은 2012년 14.6%에서 2015년 13.8%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38.4%로 급증

- 이는 2016년 In-In 거래규모 감소와 더불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로 진출한 초대형 M&A거래 증가에 기인

국내 M&A 유형별 거래규모 추이



주 : 발표(announced) 기준, M&A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자료: Bloomberg

□ 2016년의 경우 1조원 이상 초대형 In-Out 거래가 국내 국경간 M&A시장 성장을 견인

— 5,000억~1조원의 In-Out 거래는 2012~2016년 총 15건이며, 총거래규모는 10조 374억원임

- 2016년 5,000억~1조원의 In-Out 거래규모는 2조 8,363억원(4건)으로 전체 In-Out 거래의 9.2% 차지

— 1조원 이상의 In-Out 거래는 2013~2016년 총 9건이며, 총거래규모는 35조 4,393억원 규모임

- 2016년 삼성전자의 Harman 인수(10조 1,275억원)를 비롯하여 5건의 대형거래가 성사됨
- 1조원 이상의 In-Out 거래규모는 2013년 1조 8,400억원(전체 In-Out 거래대비 19.3%)에서 2016년 20조 7,365억원(전체 In-Out 거래대비 67.2%)으로 11.3배 증가

규모별 국내 In-Out 거래 추이

(단위: 억원, 건)

	거래규모		거래건수	
	1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2012		12,866		2
2013	18,400	30,544	1	5
2014	54,989	6,164	2	1
2015	73,640	22,437	1	3
2016	207,365	28,363	5	4
계	354,393	100,374	9	15

주 : 발표(announced) 기준, M&A거래 중 미결, 완료 거래에 한정

자료: Bloomberg

□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와 기술 확보 등 기업전략적 차원에서 M&A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2016년 In-Out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 확대는 국내 기업의 수익원 발굴과 PE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 둔화로 인하여 국내기업은 신규 수익원 발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M&A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